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중앙부처	[환경부] 환경부 수주지원...삼성물산, 호주 그린수소사업 진출 (08.26)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6일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호주기업 라이온 에너지(Lion Energy), 일본기업의 자회사 디지에이 에너지 솔루션스 호주(DGA Energy Solutions Australia)와 함께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 - 이번 공동개발 협약 사업은 호주 브리즈번시 인근의 항구 지역에 그린수소 생산 시설을 짓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3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호주 연료전지나 버스 회사 등에 공급할 예정 - 환경부는 이번 삼성물산의 호주 그린수소 사업 참여를 뒤에서 적극 지원 - 환경부는 작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이어 올해 호주를 그린수소 중점 협력 국가로 선정하고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양국 정부 간 공동 토론회(포럼) 개최 △타당성조사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전방위적인 수주지원 활동
	지방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특화센터 구축 협약 (08.26) - 전북자치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김현철 KTR원장,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특화센터는 오는 2028년 12월까지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2산단에 구축될 예정. 국비 100억 원, 도-완주군 각 45억 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 - 이번 협약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별 역할 등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도와 완주군의 인허가 및 행·재정적 지원 ▲KTR, 우석대의 사업 세부계획 수립·이행,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역 우수인력 채용 등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이 포함
	지방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하이텍고→수소에너지고' 전국 첫 수소 특성화고 된다 (08.26) - 전북하이텍고는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글로벌특성화고 정책 사업에 선정돼 '(가칭)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전환,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 이에 따라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학과를 폐과하고 ▲수소융합과(수소산업·경제) ▲에너지융합과(이차전지, 에너지) 2개 학과를 신설했으며, 기숙사 신축 및 최첨단 실습실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72명의 신입생을 모집 - (가칭)수소에너지고등학교는 국가 및 지역의 전략산업인 수소(완주수소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반도체(경기·충청), 자동화(완주 산단 등) 분야 신기술·신산업 정규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성장 및 진로를 지원하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 - 특히 내년도 신입생은 ▲급식비(3식)·기숙사비·특별활동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3무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지원 ▲기업 현장에서 수업을 받으면 수당(월 30만~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산학 일체 도제형(기업 최적화) 교육과정 운영 ▲졸업 후 취업 시 약 1,250만 원을 취업 장려금(정착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완주형 취업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 [대전광역시] 대전 수소트램 사업 본격화..."2028년 개통 목표 10월 첫삽" (08.26) - 대전시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인 수소트램을 제작할 현대 로템과 함께 차량 제작 착수 시민 보고회를 개최 - 현대로템은 2026년 하반기에 최초 1편성을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총 34편성을 제작해 대전시에 납품할 예정. 이를 위해 시는 현대로템과 검수, 신호 시스템을 포함해 수소트램 34편성을 제작하는 내용의 2,934억 원 규모 계약을 최종 체결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4년간의 차량 제작, 노선 공사, 시험 운행 등을 거쳐 2028년 개통을 목표
	중앙부처	- (해당 없음)
UAM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UAM 및 전기차 분야 혁신 기술 개발 박차..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 (08.25) - 대구시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및 전기차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미래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박차 - 선정된 주요 과제는 '5인승급 AAM 상용기체용 통합형 전기엔진 개발', '경량화된 최대중량 탑재 무인 AAV 비행체 개발', 전기차 분야의 '모빌리티 모터 혁신기술 육성 사업'. 이를 통해 시는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력 강화를 목표 - 5인승 첨단항공 모빌리티 상용기체용 통합형 전기엔진 개발 :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개발 및 인증 경험과 삼보모터스, 평화발레오, 유립테크 등 지역 기업의 전기차 모터 제조 기술력을 결합해 UAM 항공용 모터 개발을 목표.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34억원이 투입 - 경량화된 최대중량 탑재 무인 AAV 비행체 개발 : 지역 드론기업인 무지개연구소가 사업을 총괄하며, 화물 배송용 무인 기체를 개발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45kg 화물 중량을 탑재할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고, 장거리 통신체계를 고도화해 UAM 고도(300~600m)에서 비행 실증할 계획 [충청남도 태안군]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본격 추진 (08.25) - 태안군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공직자, 군의원, 용역기관 관계자 및 자문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 '공공-산업 복합형 UAM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국가정책 연계 태안군 UAM 정책 수립 △공공형 UAM 서비스 최초 도입-운용 △UAM 이용 관광 서비스 런칭 △UAM 기반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
우주	중앙부처	[우주항공청] 재사용 발사체 50억, 소행성 탐사 0원.. 우주청 예산 늘지만 차별화 임무는 아직 (08.28) - 우주항공청, 내년도 예산 9,649억 원 편성, 올해 대비 27% 증가 - 예산 증액은 기존 사업(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때문, 우주청만의 신규 사업은 '재사용 발사체'에 50억 원 배정 -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는 예산 확보 실패, 국제 협력 방안 모색 중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예산안 제출 시기상 우주항공청의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
		[우주항공청 우주청, NASA 워크숍 초청·저궤도 미세중력 전략 논의 (08.27)] - 9월 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저궤도 미세중력 전략 워크숍'에 공식 초청받아 참석 예정 - 국제우주정거장 퇴역 이후 유인 임무 기술 시연 및 검증, 인력 확보 등 향후 방향 논의 - 우주항공청 강현우 프로그램장 참석, 우리나라의 과학연구 및 기술 개발 현황 소개 - 윤영빈 청장, 국제 우주 협업체계 강화 및 미래 우주 산업 발전 기여 의지 밝혀
	지방자치단체	[우주항공청 "L4 탐사·재사용발사체 등 선행 연구·80억 규모 우주항공 탐색연구 추진" (08.26)] - 우주항공청 주요 프로젝트인 L4 탐사, 재사용발사체 개발 등을 위한 탐색연구 추진 - 80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탐색연구 기획과제 공고 예정 - 태양 관측 L4 탐사, 달 착륙선 탑재체 개념연구 등 포함 -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9월 4일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후위성, 미래 먹거리 주도할 것" (08.28)] -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에서 기후위성 발사 계획 재천명 - 기후위성 발사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 산업과 미래 먹거리 주도에 중요한 역할 강조 - 경기도, 2026년까지 3기 인공위성 발사 목표로 민관 협력 추진 - 경기도의회는 기후재난 대응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정부 사업과의 중복성 및 예산 낭비 우려 - 김 지사, 기후위성 관련 예산 150억 원에 대한 도의회의 협력 요청
		[사천시-국립창원대학교 사천시-국립창원대 우주항공 ICT 협력 (08.27)] - 사천시와 국립창원대, 우주항공 ICT 협력 강화 위한 공동 워크숍 개최 - 박동식 사천시장, 진교홍 국립창원대 교학 부총장 등 70여 명 참석 -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캠퍼스 설립 추진, 내년 3월 개교 목표 - 지역 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 교육기관 협력 요청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UAM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우주	국가연구기관	[산립위성센터 우주에서 산림변화 관측·다음달 '산립위성센터' 문 연다 (08.28)]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다음달 9일 서울 강동구에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산림위성센터)’ 개소식 예정 -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산림 정보와 산림환경 빅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 - 농림위성은 높은 해상도와 넓은 촬영 범위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 산림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음 -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이상현상 탐지, 디지털 산림관리 효율화 기대 - 2026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국제사회 디지털 산림관리를 선도할 전망
		[항우연] "항우연-한화에어로, 발사체 지적권 갈등에 조정위 '조정 대상 아냐'" (08.22)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항우연과 한화에어로 간의 발사체 IP 소유권 갈등 조정 대상 아님 결정 - 한화에어로는 IP 공동소유 요구, 항우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단독 소유 주장 - 조정 실패 시 민사소송 가능성, 우주항공청은 후속 간담회 계획
		[기초과학연구원] "IBS, 암흑물질 '엑시온' 탐색 장비 개발" (08.22) - 기초과학연구원(IBS), 암흑물질 후보 '엑시온' 탐색 장비 개발 및 탐색 범위 좁힘 - 12T 고자기장 환경에서 고주파 신호 탐색,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 발표 - 연구진, 차세대 엑시온 탐색 실험 방향 제시, 암흑물질 탐색 속도 향상 기대
	지방연구기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 우주산업 얼라이언스" 결성 (08.26) - 150여 개 지역 우주산업 유관 기관 및 기업과 협력 - 부산 우주산업 R&D 생태계 구축 목표 - KAIST, 우주항공청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 - 부산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

□ 민간 및 기타(논문 등)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HD한국조선해양] 핀란드 컨비온 인수...글로벌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 나선다 (08.26) - HD현대의 조선·해양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HD하이드로젠이 최근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 글로벌 리딩기업인 ‘컨비온(Convion)’ 을 약 7200만 유로에 인수 -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컨비온’ 은 2012년 설립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및 고체산화물 수전해전지(SOEC) 전문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상업용 SOFC 발전 시스템 기술과 공급실적을 보유한 회사 - HD하이드로젠이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가운데 국내 발전용과 선박용 사업을 담당하고 컨비온이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유럽 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SK에코] 진천 신척 SOFC 발전사업 자본조달 성공 (08.26) -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3일 진천 신척 연료전지 사업 수행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 진천 신척 연료전지 사업은 충북 진천군 신척산업단지 내 19.8MW 규모의 SOFC 발전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 발전소 준공 후 정상 가동 시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166.5GWh에 이르며, 2023년 기준 충북 진천군의 연간 주택용 전력사용량(146.4GWh)을 웃도는 수준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블룸에너지 SOFC는 높은 효율을 기반으로 같은 양의 연료를 투입하더라도 다른 방식보다 더 많은 전력 생산이 가능. 낮은 발전원가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도 두각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UAM	민간기업	<u>[한화시스템] UAM 해외 투자서 국방용 AAV 개발로 전략 선회 (08.26)</u> - 한화시스템의 도심항공교통(UAM) 사업부가 미국 오버에어로부터 받지 못한 466억 원의 투자금 손실을 면하기 위해 미래 청사진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 - 방산용 기체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 만큼 선제적으로 국방용 미래비행체(AAV) 개발에 나서 2040년 1354조 원이 될 미래항공교통(AAM)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는다는 전략 - 한화시스템은 2019년 eVTOL 제작업체 오버에어에 약 2,500만달러(약 350억원)을 투자. 2022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500만달러(약 900억 원), 한화시스템이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추가 투자. 오버에어 지분 45.3%를 보유하게 됐지만 개발된 기체의 미국 FAA 인증을 받는 데 실패 <u>[본에어] 추석특가 프라이빗 헬기상품 판매 (08.27)</u> - VON프라이빗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자유롭게 지정하여 이동할 수 있는 헬리콥터 차터서비스로 도로 위주의 이동에서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VIP 모빌리티 서비스 - 프라이빗 헬기 코스는 서울 강남에서 출발하여 대구, 광주, 부산행 편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휴기간 동안 막히는 귀성길 도로에서 벗어나 대구 60분, 광주 75분, 부산 90분 만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음 - 이번 추석특가 프라이빗 헬기상품은 기존 가격보다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u>[블룸버그,포브스] UAM 기체 대중화 아직 갈 길 멀어, 한화 SK 투자 비우호적 전망 확산 (08.23)</u> - 23일 블룸버그와 포브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eVTOL 기업들의 수익화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것으로 분석 - eVTOL은 이름 그대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제자리에서 수직으로 바로 날아 오를 수 있는 항공기 - 블룸버그는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의 보고서를 인용해 “첨단 항공 이동수단에 투입된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21년만 해도 75억 달러(약 10조 434억 원)였지만 2023년에는 13억 달러(약 1조 7,400억 원)로 크게 줄었다”고 보도 - 한화와 SK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그룹들도 미국의 유망 eVTOL 제조 스타트업들에 대거 투자해 UAM 사업진출을 모색 - eVTOL 제조에 뛰어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항공기 생산 업력이 길지 않은 스타트업들 중심이라는 점도 사업화 가능성에 의구심을 키우는 요소
우주	민간기업	<u>[아이엘사이언스] 우주 위성체용 전고체배터리 구현 (08.27)</u> - 아이엘사이언스, 세라믹 소재 활용해 우주 위성체용 전고체배터리 구현 성공 - 영하 20도에서 영상 120도까지의 온도 범위와 초고진공 환경에서도 안정성 입증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가천대와 협력해 배터리 용량 증가 연구, 글로벌 핵심 특허 확보 - 전고체배터리, 우주 위성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 산업에 적용 가능성 - 우주 위성체용 전고체배터리 시장, 2040년 740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u>[에이치브이엠] "우주 항공용 첨단금속 제조공장 착공식 개최" (08.23)</u> - 에이치브이엠, 서산 제2공장에서 우주·항공용 첨단금속 제조 위한 공장 착공 - 내년 3월까지 주요 설비 증설, 생산능력 5500톤/년에서 1만2700톤/년으로 증가 예상 - 우주 분야 매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179% 성장 - 2025년 공장 증설 완료 후 우주·항공용 첨단금속 고성장 기대
		<u>[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사내벤처 플렉셀 스페이스, 에어버스와 차세대 우주 전지 공동개발" (08.23)</u> - 한화시스템 사내벤처 플렉셀 스페이스, 에어버스와 협력해 차세대 우주용 태양전지 모듈 개발 - 경량화와 효율성 유지 목표로 저비용·고효율의 유연 태양전지 셀 설계 예정 - CIGS와 페로브스카이트 결합한 탠덤 태양전지 셀, 우주산업에 적용 가능성 - 양사, 우주 태양전지 기술 혁신 및 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대학교	<u>[KAIST] 인공위성 사이버 보안 점검, 국내 최초 수행 (08.28)</u> -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국가정보원과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인공위성 및 지상국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점검을 수행 - 이번 점검은 우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국가 위성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 -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위성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출범, 인공위성의 설계·운용·폐기 등 생애 전주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 - 인공위성연구소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차세대소형위성과 운영 지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이버공격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 이광형 KAIST 총장은 KAIST와 국가정보원의 협력이 시너지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기여할 계획을 강조
		<u>[창원과학고] 국내 아마추어 최대 고체연료 로켓 발사 (08.28)</u> - 창원과학고 학생들, 국내 아마추어 규모 최대 크기 고체연료 로켓 'QUASAR-1' 발사 성공 - 로켓 길이 3.5m, 무게 35kg, 상공 약 1km까지 상승 후 낙하산 사출 및 노즈콘 회수 - 11개월간 연구 및 제작, 3D프린팅과 CNC가공 등으로 부품 자체 제작 - 고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사, 학생들 “도전 끝에 성공해 기쁘다”
		<u>[경상국립대학교] 국내 첫 우주항공분야 단과대학 신설 (08.27)</u>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전체 모집인원의 81%인 3801명 선발 예정 - 전형별 평가 방법 간소화 및 선택권 확대 - 우주항공대학 신설, 입학정원 174명으로 확대 - 등록금, 기숙사비 전액 지원 및 성적 우수 장학생 생활보조금 제공 - KAI·한화시스템 취업 연계 트랙, 국내외 우수기업 현장 실습 추진
		<u>[한국항공대] "한국항공대-우리별 우주개발 사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08.25)</u>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한국항공대학교와 방산혁신기업 우리별, 우주산업 분야 공동연구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차세대 저궤도 큐브위성 핵심 기술 공동연구, 2027년까지 진행 -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와 협업, 큐브위성 개발과 발사 경험 바탕으로 산학 협력 추진 - 허희영 총장, “우리별의 경쟁력 강화와 항공대 발전 기대“ - 이정석 대표이사, “차세대 명품 큐브위성 개발로 미래성장동력사업 발굴“
		<u>[스페이스X] 첫 민간인 우주 유영 이뤄질까... '크루드래건' 최고 고도 비행 나선다 (08.28)</u> - 인류 사상 최초로 민간인을 우주로 보내는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 던' 임무, 28일 발사 예정 - 헬륨 누출 문제로 발사 일정 하루 연기,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후 4시 38분과 8시 9분 사이 발사 예정 - 민간 우주비행사 4명이 탑승한 크루드래건, 최고 1400km 고도까지 비행 예정, 이는 ISS 궤도보다 3배 높은 고도 - 민간인 비행사들은 5일간 우주에서 40여 개 연구와 실험 수행, 핵심은 비행 3일째에 있을 민간인 우주 유영 - 아이잭먼 등 2명이 우주선 밖으로 나가 약 15~20분간 우주 유영 진행 예정
		<u>[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극한 환경 견디는 달 탐사선 23일로 운용 종료 (08.27)</u> - 일본 최초 달표면 착륙 무인탐사기 '슬림', 23일 활동 종료 - 2023년 9월 발사, 2024년 1월 달 착륙 성공 후 10개 암석 관측 - 극한의 온도 변화 속에서도 3번의 달밤을 견디며 통신 유지 - 4월 휴면 상태 전환 후 통신 실패, JAXA 최종 종료 선언 - 소기의 목표를 웃도는 성과, 상세 성과는 별도 보고 예정
해외		<u>[보잉] "스페이스X 싫은데" ··· NASA 발표에 무너진 자존심 (08.26)</u> - NASA, ISS에 발 묶인 우주비행사 귀환에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캡슐 사용 결정 - 보잉의 우주캡슐 '스타라이너' 문제로 자존심과 실리 모두 잃어 - 보잉 직원들, 창피함과 굴욕감 토로 -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서 보잉의 어려움 지속
		<u>[중국] "우주 쓰레기 퇴치 중국판 스타링크 아·중·미·중" (08.25)</u> - 중국의 창정-6A 로켓 폭발로 발생한 수백 개의 우주쓰레기, 미·중 갈등 심화 - 미국 우주사령부, 국제우주정거장에 즉각적 위험은 없으나 우주 파편 발견 - 우주쓰레기가 수십 년간 우주에 남아 있을 가능성 지적 - 중국 외교부, 우주 파편 감소 노력 언급했으나 구체적 조치 언급은 없어
		<u>[중국과학원] "중 과학자들 달 토양에서 물 추출 신기술 개발" (08.23)</u> - 중국과학원 연구팀, 달 토양에서 물을 추출하는 신기술 개발 - 달 토양 1g으로 약 51~76mg의 물 생성 가능, 1t의 토양으로 50L 이상의 물 추출 가능 - 고해상도 전자현미경 활용, 태양풍에 노출된 달 토양 광물 내 수소 발견 - 오목 거울로 햇빛 집중, 달 토양 가열해 물 증기 방출 제안 - 연구팀, 달 연구 기지와 우주 정거장 건설을 위한 설계 기반 제공 기대

□ 기타(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주제	기관명	제목 및 주요내용	개최일자
수소	-	- (해당 없음)	-
UAM	고양특례시	<u>고양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개최</u> -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첨단 항공 모빌리티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4 고양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를 개최 - 박람회는 △로보월드 △한국국제건설기계전 △THE AI SHOW △디지털퓨처쇼 △디지털미디어테크 △콘텐츠코리아 △블룸업코리아 △경기 국제 글로벌 대전환 포럼 등과 함께 동시에 개최될 예정 - 박람회에는 K-UAM 프로젝트 참여 컨소시엄을 비롯해 포스코, SK텔레콤(SKT), LIG 넥스원, 한컴아카데미, 태경전자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 -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중부대학교, 경운대학교 등이 참여할 예정	2024.10.23. -2024.10.25.
우주	환경과학원-NASA	<u>환경위성 학술대회 개최 (08.25)</u>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NASA와 공동으로 ‘한미 정지궤도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 개최 - 10여 개국 80개 기관, 200명 이상 참여, 하와이에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려 - 위성 정확도 검증, 국제공동조사, 인력 교류 등 협력 강화 목표 -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탐사 위성과 정지궤도 환경위성 연구 및 인력 교류 추진	2024.08.26. -2024.08.30.

-끝-